

루트에 대한, 대화

Conversation,
about the ROOT

다이애나밴드
diana band

2021. 3. 18 - 4. 18. (*월요일 휴관)
SeMA창고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모종의 신호를 교환하는 사물들의 관계망 안에서
‘소리적 사건’이 발생하는 다이애나밴드의 전시
《루트에 대한, 대화》는 ‘사물-소리-움직임’ 사이의
비언어적인 대화들, 인과적이지 않은 평평한 관계성에
주목한다.

《루트에 대한, 대화》에 대한, 단서들

여혜진

드럼통, 낚시찌, 탁구공, 두루마리 휴지, 조명등, 플라스틱 호스 등이 놓여있다.
드럼통은 빈 채로 있고 낚시찌는 그 무엇도 낚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 양쪽에
동그렇게 달린 조명등도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 채 목적 없이 깜빡-
깜빡거린다. 《루트에 대한, 대화》에 등장하는 익숙한 사물들은 익숙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다이애나밴드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의 순서는 사물들을 원래 갖고 있는
기능으로부터 놓아주는 일, 제 기능에 최적화된 원래의 도구적 모양새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했다.

신원정과 이두호, 2인으로 구성된 다이애나밴드와는 2020년 봄부터 《루트에
대한, 대화》를 상상하며 대화를 나눴다. 대화 안에 자주 등장한 단어들을
꼽자면 소리, 사건, 움직임, 감각, 세계 등의 단어들이 제일 먼저 생각난다.
기능과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사물들에게 남겨진 것을 이 단어들을 단서 삼아
가늠해보려 한다.

무심한 소리적 사건

‘루트’라는 보이지 않는 관계망 안에서 사물들은 움직임과 소리를 만들어낸다.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을 두드리면서 미세하게 떨거나 슬쩍 스치며 진동을
만들어내고 허공에서 운동을 하며 소리를 발생시킨다. 이 원초적인 움직임이
소리를 만들어낼 때 사물들은 비로소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움직임과
소리는 서로를 보조하는 대신 존재의 조건으로 서로의 세계에 깊숙이 참여한다.
다이애나밴드는 전시 공간에 사물들을 놓아두고 이렇게 말한다. “밖에서 들리는
차 지나가는 소리도, 음...(한참을 생각한다) 괜찮고”라고. 그렇게 작가가
만든 사물들의 소리만이 아니라 작가가 만난 사물 밖의 소리까지 공간 안으로
초대하는 다이애나밴드에게 ‘소리’라는 것은 재료이자 온전한 생태계다.

기획	여혜진
그래픽 디자인	들토끼들
영상·사진 기록	우에타 지로
퍼포먼스 협업	여다함
얹는 기술 제작	무진동사
후원·주최	서울시립미술관

공간 안의 사물들은 보는 이의 감정선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원심력에 의존한 채 돌다가 돌연 헛발질하는 유머감각을 구사하고 우아한 몸짓을 고고하게 선보이기도 한다. 드라마를 만들거나 과장된 인과성을 갖는 대신 자신의 성격에 맞게 그저 충실하게 ‘존재’하다가 불현듯, 모든 사물들은 정지한다. 소리라는 상태와 소리 없음의 상태가 긴밀히 호응할 때 사건을 만드는 것에는 무심한 듯 한 사물들의 ‘소리적 사건’을 발견하게 된다.

사물들의 온전한 세계

숲의 땅 아래 가늠할 수 없이 울창한 뿌리들이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사물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루트’는 분명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지의 것으로 여겨진다. 미지의 신호들을 성실히 수신하며 강박적이거나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다정하고 귀엽기도 한 동작과 소리들이 교차하는 사물들 사이를 걷다 보면 구불구불, 울퉁불퉁, 뽀로통, 킥킥덕, 넘실넘실처럼 소리와 표정이 동시에 떠오르는 절묘한 단어들이 스친다. 울창한 숲이 느껴지기도 하고 불현듯 늦가을 밤에 데려다 놓기도 한다. 이 사물들은 어떤 소리를 모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한낱 사물들이 명사적 존재에서 동사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격하며 주체성을 획득한 사물들의 세계에 온전히 의존해 감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풍경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사물과 ‘나’ 사이에 평평한 관계가 형성된다.

숲에 들어갈 때는 숲이라는 완전한 세계에 손님이 되듯이 《루트에 대한, 대화》에서는 사물들이 구축한 세계에 인간이라는 외계적 존재가 되어 방문하게 된다. 낯선 언어들이 오가는 대화에 슬며시 끼어들어 소심하게 알아듣는 척하게 된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이방인이 되어 낯선 세계와 만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그럴 필요가 있다.